

2000년 동안 교회가 반복한 일

- 복음을 윤리로 끌어내리는 일

김철홍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1. 바울 사후(死後)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 바울 복음은 망각되었다.

레이먼드(Robert L Reymond)는 그의 책 『바울의 생애와 신학』에서 2세기 초, 중반 전후에 등장한 초기 교부들(apostolic fathers)의 글에 이미 교회가 선행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율법주의로 회귀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점점 더 심각하게 구원론적 오류에 빠져들어서, 은혜와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를 취하며 선행을 행하는 것을 구원의 길로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사도시대 이후 계속된 교회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가운데 하나다. 교부들의 저작을 통하여 비복음적인 율법관이 사실상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¹

이 말보다 더 놀라운 말은 커크(Kenneth Kirk)의 말이다.

그런데 만일 그[바울]가 50년이나 1세기 후에 살았더라면 깜짝 놀랄 일이 백 배는 더 많았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온 기독교 교회에 전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마다 온통 율법과 순종, 상급과 형벌로 기독교를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²

이런 평가는 초대교회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다. 예

와 신학』(Paul Missionary Theologian: A Survey of His Missionary Labours and Theology).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552, no 35.

2. Kenneth E. Kirk, The Vision of God: The Christian Doctrine of the Summum Bonum (London: Longmans, Green, 1931), 111 (위의 책에서 재인용).

1. 로버트 L. 레이먼드 (Robert L Reymond), 『바울의 생애

를 들어 니브(J. L. Neve)는 『헤르마스의 목자(The Shephard of Hermas)』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널리 읽혔던 책에서 그리스도가 새 율법(nova lex)을 주신 분으로 취급되는 것을 지적한다.³ 그는 클레멘트(Clement of Rome)의 글의 일부를 제외하고⁴ 당시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은 도덕주의로 치우쳐 있다고 평가한다. 토렌스(Thomas F. Torrance)는 이렇게 말한다. “목자 책(the Shepherd) 전체를 통해 도덕적 행위와 율법에 합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강조된다.”⁵ 이점에 대해서 켈리(John Norman Davidson Kelly)도 아래와 같이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그들[사도 교부들]의 글들은 속죄 개념이 현저하게 약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 교부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닌 속죄적 가치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의 생각 속에 훨씬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율법 수여자, 지식, 불멸,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여자로서의 그리스도상(像)이었다.⁶

니브는 “당시의 전체적 생활분위기는 스토아 사상과 유대교를 통해서 도덕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생활을 강조한 결과는 그와 같은 도덕주의의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은 차츰 희미하게 되어 갔던 것”⁷이라고 말하면서, “은총과 신앙과 용서는 이제 새 율법과 선행에게 그 터전을 빼앗기게 되었다”⁸고 결론짓는다. 토렌스(Thomas F. Torrance)는 사도적 교부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은혜’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린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계시된 진리에 대해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였다. 은혜란 그것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앙이라는 것을 주로 칭의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 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번에 하나님 자신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행하시는 행위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밑줄은 필자의 것)⁹

당시 교회의 주된 관심은 새로운 율법을 어떻게

3. J. L.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Philadelphia: Muhlenberg, 1946), 『기독교교리사』, 서남동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93.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토렌스(Thomas F. Torrance)는 Sim. 1.1.7, 8.3.2.3, 8.3f., Man. 12.4.3 등을 지적한다. Thomas F. Torrance, The Doctrine of Grace in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Eerdmans, 1959), 116.

4. 예를 들면, 1 Clement, 32.3-4처럼 하나님의 의에 의해 신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과 같은 것.

5. “Strong emphasis is laid throughout the Shepherd on moral activism, and the striving for legal conformity.” Ibid.

6.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5th edition, 『고대 기독교교리사』 (한국어 번역본은 1977년 4판 번역), 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181-82.

7. Neve, 『기독교교리사』, 94.

8. Ibid., 95.

9. Torrance, The Doctrine of Grace, 133. 번역은 레이먼드, 『바울의 생애와 신학』, 553, n.35의 것.

하면 지켜 순종할 수 있을까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정도로 이해되었다.¹⁰ 2세기 초, 중반의 교부들조차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복음으로부터 이탈했다는 점은 2세기 교회 안에 진정한 은혜의 교리(genuine doctrine of grace)가 없었다는¹¹ 충격적인 사실은 충분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2. 교회의 신학은 끊임없이 복음을 윤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2세기 교부들의 이런 경향은 그 이후 교정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어거스틴(Augustine, 354-430년)이 살아있던 시절에 그가 ‘은혜’를 ‘비교적 더’ 강조하는 신학을 한 것을 제외하고 이런 경향은 결코 수정되지도, 교정되지도 않았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 로마가톨릭교회의 신학은 이런 경향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바울 사후 거의 1500년 동안 그의 십자가복음은 잊혀지고, 무시되고, 왜곡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종교개혁은 1500년 동안 교회에서 잊혀져온 바울의 십자가복음을 재발견하고, 십자가복음의 내용을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시 회복한 사건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1500년 동안 복음을 왜곡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심판론, 행위구원론을

가르쳐왔을까? 그것은 세속사회의 도덕철학과 윤리학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복음과 도덕/윤리를 조화(harmony) 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복음과 도덕/윤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이 두 가지가 결코 쉽게 조화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억지로 결합하면 은혜의 복음은 사라지고 ‘선한 사람은 구원받고, 악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병리적 현상(일명 영어로는, good-person-goes-to-heaven syndrome)이 교회에 나타나게 된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에 윤리와 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할레당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루터가 스콜라 신학에 반대한 기본적 이유는 스콜라 철학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헬라 철학의 인간관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인간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헛되고 해로운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비유들은 너무나 미숙하다. ...그들이 영과 육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¹²고 말한다.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과 도덕론이 스콜라 철학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비판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처럼 미덕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방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고 우리의 행위들을 사람들 앞과 우리 눈앞에서 칭찬받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고 논쟁을 좋아하게 유발한

10. Ibid., 139-41.

11. Ibid., 137-38.

12. 루터, 『루터:로마서 강의』, 342.

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혐오스럽고 그 반대가 그를 훨씬 더 기쁘게 할 것이다”¹³

성경과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끊임없이 인간의 윤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신학의 이름으로 도덕철학과 복음을 조화시키려는 이런 지긋지긋한 신학자들의 노력은 종교개혁을 계기로 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2000년 교회역사에서 교회가 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겨우 500년 정도에 불과한데도, 루터(1483-1546)가 죽은 뒤 약 150년이 지난 17세기 말부터 이미 종교개혁의 결과를 다시 뒤집는 노력이 시작된다. 장미전쟁과 30년 전쟁과 같은 개신교와 로마가톨릭 사이의 종교전쟁이 끝난 17세기 말에 루터파교회는 독일의 국가교회가 되지만, 역설적으로 독일사회는 도덕적으로 가장 많이 타락한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독일의 경건주의(pietism) 운동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루터의 신학적 성과를 부분적으로 부정하고 로마가톨릭 쪽으로 옆길무림 하여 다가갔다. 다시 행위를 강조하는 신학이 등장했고 개신교 안에서 아르미니안주의(Arminianism)가 등장함으로 이런 경향은 그 정점에 도달했다.

루터와 칼빈이 1500년 동안 묻혀 있던 십자가복음을 다시 꺼내 그 녹을 닦아 그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모든 노력을 뒤집으려는(to undo) 시도는 그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 근래에 일어난 ‘바울신학의 새 관점(New Perspective on Paul)’

논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논쟁이다. 결국 핵심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윤리와 행위를 추가한 복음을 가르칠 것인지 여부다. 복음을 복음으로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윤리로 바꿔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3.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4:4-5에서 바울은 “일하는 자”와 “일을 하지 않는 자”를 대조한다.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다. 그러므로 이 대조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사이의 대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상식에 따르면 경건한 자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는 심판받고 멸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즉,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언급하여 두 개의 구원론을 충돌시킨다. “일하는 자”의 구원의 길은 레위기 18:5,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가리키는 길이다. “일하지 않았으나 칭의를 받은 사람”의 구원의 길은 하박국 2:4,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가리키는 길이다. 첫째는 행위를 통한 구원이고, 둘째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11-12에서 위의 두 구약성경 구절을 연달아 인용함으로 두 개의 구원론을 명확히 대조한다. 즉, 바울은 구약성경이 첫 번째 구원의 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에 관해서도 이미 말하고 있다고 본다.

13. 루터, 『루터:로마서 강의』, 408-9.

이 두 개의 길을 연결해서 서로 모순되지 않게 설명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곧 행위와 구원을 설명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설명법이다. 이 설명법은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다. 구원은 행위(work)의 대가/값(reward)으로 지불된다. 이 길은 율법주의 종교, 도덕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로마가톨릭, 신인(神人)협력설(synergism)의 길이요, 복음에 할례와 율법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는 할례당(갈 2:12)의 설명법이다. 다른 길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설명법이다. 이 설명법에서 선한 행위는 구원의 결과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는 선한 행위는 대가(reward)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쁨으로 하는 봉사(service)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위는 구원론(soteriology)의 범주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Christian ethic)의 범주가 된다. 이 설명법은 복음의 길이요, 바울과 루터가 제시하는 설명법이다.

오늘 날 한국교회의 윤리적 수준이 떨어졌으므로 두 번째 설명법을 포기하고 첫 번째 설명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기독교인의 선한 행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지만, 행위가 구원 여부와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1520)에서 루터는 선행이 그리스도인을 더 거룩하게 하거나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바울신학의 새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1세기 유대교가 은혜로 구원받아 그 감사의 응답으로 율법을 지키는 은혜의 종교였다는 전제에 서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유대교

를 ‘일(works)의 종교’가 아니라 ‘봉사(service)의 종교’로 보면서도 오히려 바울의 복음은 ‘일의 종교’로 만들어 버린다. 새관점 학자들은 심지어 루터가 바울을 오해했고, 루터의 칭의론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심각한 것은 이런 주장들이 교회의 강단에서 신학교의 교단에서 거리낌 없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칭의는 일회(一回)적 사건이며 반복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눈감고 “칭의는 단번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삶의 과정으로 생각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종교개혁의 성과를 부정하려고 한다. 지금의 교회와 신학교가 과연 2세기 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글 | 김철홍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과 유니온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에서 S. T. M. in Ecumenics을, 미국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및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회장, 서울교회 협동목사로 있다.